

3. 성서공부 3 가지 형태

들어가면서

- 대전제. 성서의 기능은 가르침 => 나는/우리는 누구인가, 어떻게 살아야 하나?
- Christian Identity. Jesus Christ => Jesus is the Christ (예수가 그리스도다!)
- “구원의 경험” (Personal Experience) => 예수와의 연관성

A. 성서를 대하는 3 가지 입장

- 내용(content): 성서란 무엇인가. 무엇을 담고 있나?
- 구성(shape): 성서는 어떻게 쓰였나, 만들어 졌나?
- 가치(value): 성서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? 성서가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가치는?

	무엇인가 (내용)	어떻게 쓰였나 (구성)	어떻게 좋은가 (효용/가치)
근본주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“하나님 말씀”</li> <li>• 역사적으로 일회성 사건 (예. 홍해를 건넌 일, 동정녀 탄생, 오병이어 사건)</li> <li>• Pre-Modern (content)</li> <li>• 성서 내용 요약=&gt;조직신학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초자연적 계시</li> <li>• 모세는, 예수는 유일 무이의 계시=&gt;신적 권위</li> <li>• 성서의 사건들은 대부분 “예외”적 사건</li> <li>• 우리(o); 그들(x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점—Security, 기독교 경전 (Badge, i.d.)</li> <li>• 단점—무책임성; 기독교 대~단하지만,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(믿는 것 외에는) 별로 없다!</li> </ul>
자유주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스라엘의 문학, Factual, Historical, Fictional</li> <li>• 성서의 이해 (how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스라엘 백성에 금지를, 그리고 교훈을 전달=&gt; 지식</li> <li>• Modern . 역사적 이해</li> <li>• 우리(x); 그들(o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점—종교학, 고고학적 가치</li> <li>• 단점—신앙인과 무관, 역사적 연구/지식 절대화</li> </ul>
우리들의 신학하기 (성서적 모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앙인들의 삶과 지혜 모음집</li> <li>• 이스라엘 민족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학 하기</li> <li>• 성서와의 만남 (where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나는 누구인지, 어떻게 살지를 가르친다</li> <li>• 예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“모범”이다=&gt; 지혜</li> <li>• 우리(o); 그들(o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점—나도 예수처럼 자긍심을 가지고 산다.</li> <li>• 성경은 나를 위한 이야기</li> <li>• 단점—책임감/부담감, 불확실성*</li> <li>• Post-Modern</li> </ul>

\*열린 미래와 내가 선택해야 하는 자유에서 비롯된 실패의 가능성/위험성/두려움을 감수 (Risk-taking)

B. 우리는 성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?

1. 하느님의 말씀, 어떤 의미에서? (딤후 3:16) “하느님의 감동하심”(θεόπνευστος=> God-inspired, of the spirit of God)이란 표현은 신구약 성서 전체를 통틀어 오직 한 번 나오는 표현.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?

- Word of God (subject)
- Word about God (object)
- Word from God (source)

2. 성서해석의 두 축(stability and adaptability)

- 안정성(stability)=> 정체성. 성서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. 누구나 그것이 독특한 기독교 경전으로 구분하여 이해해야. Q. 내 성서이해, 신앙생활이 다른 종교/가르침과 구분되어, 기독교적이라 할만한 요소는?
- 적응성(adaptability). 어느 시대, 어느 민족에게나 새로운 언어로 바뀌어도 그 뜻, 의도, 가치를 전할 수 있어야. Q. 내 성서이해, 신앙생활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는 언어로 바꾸면?

3. 왜 썼을까? (의도)

- "구원"의 사건, 경험을 통해 얻은 그 "구원"/가치/뜻을 전하기 위해. (바로 이 가치가 내게 귀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, 성서는 오늘도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.)
- 성서를 읽을 때, "무엇," "어떻게," "왜" 이 3 가지 질문은 항상 있을 것인데, 그 중에 제일은 "왜"라는 질문이라. 왜? 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. (다른 것은 시공의 차이, 전달매개체—언어—의 제한성 때문에 매이기 쉽다. 근본주의, 자유주의처럼 =>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)